

평양, 프랑크푸르트, 김애란

서영채 | 문학평론가, 한신대 교수

문학계의 2005년은 어느 해보다 좀더 각별한 의미가 있어 보인다. 그 자체로 우리 사회의 화제가 될 만한 행사인 '남북작가대회'와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 행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김애란을 비롯하여 한국문학의 긍정적 미래를 발견할 수 있는 첫 책을 낸 주목할 만한 신예들이 있었다.

새해를 맞으며 지난 한해를 돌아보는 일이야 이 즈음의 연례행사지만, 문학계의 2005년은 어느 해보다 좀더 각별한 의미가 있어 보인다. 두 개의 중요한 행사, '남북작가대회'와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 행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두 행사는 그 자체로 우리 사회의 화제가 될 만한 행사였고, 또한 지속적인 성찰을 위한 중요한 화두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통일과 문학이라는 목직한 화두, 그리고 한국문학의 세계화라는 불편한 화두가 그것이다.

통일과 문학이라는 목직한 화두, '남북작가대회'

'남북작가대회'는 7월 20일부터 6일 동안 북한에서 열렸다. 90여 명의 남쪽 작가들이 북한을 방문하여, 평양과 백두산, 묘향산 등지에서 북쪽의 작가들과 만났다. 일단은 대회가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큰 성과라 평가할 만하다. 분단 60여 년 만에,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되었든 간에 남북의 작가 간에 공식적인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역사적인 사건이라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듯이, 이제는 통일 문제에 있어 '우리 민족끼리'라는 식의 감정적인 접근은 지양해야 할 태도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민족이니 한 나라로 같이 살아야 한다는 당위적 논리보다는, 남북이 함께 지불해야 할 통일 비용이라는 경제적 관점에서 통일 문제에 접근하는 시각이 좀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시각에 의할 때,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남북간의 적대해소이자 화해협력이고, 이를 위해 긴요한 것은 통일 논의보다는 분단 관리라는 것이다. 남북간의 적대가 해소되어 자유 왕래가 실현된다면 형식적인 통일은 부차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는 우리의 통일 담론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것일 뿐더러, 통일이 이제는 단지 감상적인 구호가 아



2005년 7월 20일부터 6일 동안 북한에서 열린 '남북작가대회'

니라 우리에게 당면한 현실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표지다. 이제는 통일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통일이며 무엇을 위한 통일인가를 좀더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남북작가대회'의 공식 명칭은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작가대회'였다.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이라는 제한이 꼭 필요했을까. 그냥 작가대회가 아니라 민족작가대회여야 했을까. 이는 단지 대회의 명칭이라는 문면 자체만의 문제는 아니다. 통일이라는 문제에 임하더라도 문학은 정치와는 다른 방식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남북이 60여 년의 분단을 넘어 새로운 접합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언어와 문법들이 뒤섞이는 경험을 치러내야 한다. 정치와 경제가 그 나름의 방식으로 말 섞기를 시도했다면, 문학은 명백한 외적 한계 안에서라도 문학 고유의 방식으로 대화를 시도했어야 했던 것이 아닐까. 통일에 관한 담론이 이제는 어느 정도의 성숙에 이르러 무엇을 위한 통일인지를 생각할 단계에 이르렀다면, 남북 간의 대화도 이제는 정치 일변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채널이 자기 고유의 방식으로 대화를 시도하고 소통의 통로를 만들어 내는 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닐까. 조금 속도를 조절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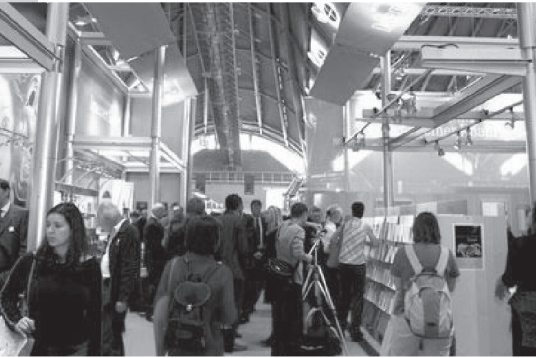
더라도 문학이 문학다울 수 있는 방식의 대화를 꾸릴 수는 없었을까.

'남북작가대회'라는 독특한 경험을 통과하며 내게는 이런 생각들이 어지럽게 오셨었다. 물론 북측의 언어들을 상대하면서 대화를 만들어내야 했던 남측 담당자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감안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어쨌든, 최초의 관문이라는 상징적인 강은 어렵사리 건넜으니,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보자.

한국문학의 세계화라는 불편한 화두,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 행사

한국이 주빈국으로 초대받은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은 10월 19일부터 5일간 열렸다. 물론 이를 위한 준비는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도서전을 위한 조직위가 꾸려지고, 한국의 책 100권을 선정하여 번역 작업에 들어간단든지, 또 연인원 100여 명에 달하는 작가들이 독일 전역을 돌며 200여 차례 낭독회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것이다. 한국에서는 이번 주빈국 행사를 두고 문화 올림픽이라는 수사를 자주 썼다. 그만큼 비중 있는 행사로 대접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치 월드컵이나 올림픽을 준비하듯이, 짧은 시간에 악착같이 전투적으로 치러냈고, 준비한 시간에 비하면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은 책의 판권이 거래되는 대형 출판 시장이다. 그곳에서 주빈국 노릇을 때깔 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매자들에게 내어놓을 만한, 유럽어로 번역되어 있는 책들이 있어야 했다. 문제는 언제나 여기에서 발생한다. 번역,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안타까움과 악착같은 한국의 언론이 보이고 있는 노벨상을 향한 비정상적인 갈증과 유사한 심리적 기제를 지니고 있다. 세계인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좋은



한국이 주인공이었던 2005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콘텐츠는 많은데 번역이 문제라는 생각, 그리고 구미인들에게 다른 것이 아닌 문화적 역량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열망이 잠재해 있으며, 정말 우리가 인정받을 만한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고, 그래서 더욱더 구미인들의 시선과 인정이 필요해진다. 2000년대에 들어와 한국문학을 해외에 소개하겠다는 취지 아래 정부의 출연으로 만들어진 한국문학번역원 같은 기관은 이런 갈증의 대표적 상징이다.

그러나 과연 번역이 문제인가. 번역이 중요한 것은 다른 언어권의 독자들에게 책이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단순히 번역을 하는 일만이 아니라, 다른 언어권 독자들의 손에 책이 가는 것, 그들에 의해 서점에서 선택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번역을 하는 것이다. 같은 네이티브 스피커라 하더라도 문장에 대한 감각이 다르고,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으로 치면 천차만별이다. 자국 독자들의 취향과 감각에 맞는 작품을 골라, 자국어의 맛을 살려 번역해내는 일은 단순히 번역자의 능력이나 열정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나라의 독자들의 감각과 출판 시장의 논리를 기늠할 수 있는 출판 시스템과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눈앞의 성과를 중시하는 현재의 번역 지원 사업은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것이 아닐까

싶다. 번역을 한들, 또 이쪽의 요구에 의해 책이 만들어 진들, 그 나라의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독자들에게 전달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밀 빠진 독에 물 붓기라 할지 모르나, 단발적인 번역 지원보다 중요한 것은 해외의 한국문학 연구자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일회적인 번역 사업이 아니라, 한국문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에 지원하는 것이다. 그런 관심이 충분히 축적되고 난 이후에야, 진정으로 쌍방향적인 문화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한국문학의 세계화는 한국문학을 세계 속으로 던지는 일이 아니라, 세계로 하여금 한국으로 와서 문학을 가져가게 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번역 지원 사업에 비하면 너무 먼 길이라고 말하지 말자.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면 그것은 또한 가장 가까운 길이기도 하다.

새롭게 등장한 무서운 신예

역량 있는 신인들을 만나는 일은 언제나 즐거운 일이다. 2005년에도 첫 책을 낸 주목할 만한 신예들이 있었다. 『달려라, 아비』의 김애란, 『귀뚜라미가 온다』의 백가흠, 『사람의 신화』의 손흥규, 『때론 아내의 방에 나와 닮은 도둑이 든다』의 안성호, 『아오이기든』의 편혜영 등이 그들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김애란의 활약은 인상적이다.

김애란은 등단한 지 채 3년이 되지 않은 작가이고 1980년생이다. 그런 그가 유서 깊은 메이저 문학상 중 하나인 한국일보 문학상의 수상자가 되었고, 뒤이어 첫 번째 책을 냈다. 최연소 수상자라는 점에서 단연 화제가 되었으나, 이런 점 때문에 화제가 되었다고 한다면 본인으로서 좀 섭섭할 수도 있겠다. 그에게도 독자들에게도 중요한 것이 소설이자 책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달려라, 아비』는 9편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다. 뛰어난

김애란은 등단한 지 채 3년이 되지 않은 작가이고 1980년생이다. 그런 그가 유서 깊은 메이저 문학상 중 하나인 한국일보 문학상의 수상자가 되었고, 뒤이어 첫 번째 책을 냈다. 최연소 수상자라는 점에서 단연 화제가 되었으나,

이런 점 때문에 화제가 되었다고 한다면 본인으로서 좀 섭섭할 수도 있겠다. 그에게도 독자들에게도 중요한 것이 소설이자 책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김애란, 『달려라, 아비』, 창작비평사, 2005

난 문장 감각과 독특한 서사적 감수성이 돋보이는 책이다. 그의 출세작이자 책의 표제작 『달려라, 아비』의 예를 들어보자. 아버지에게 버림 받은 딸과 그의 엄마가 도망간 아버지이자 남편의 부고를 받는 이야기다. 유쾌하기는 힘든 이야기인데도, 소설 전체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유머로 감싸여져 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 농담 잘하고 장난 잘 치는 엄마와, 자기들을 버리고 간 아버지를 오직 상상 속에서만 만날 수 있었던 속 깊은 딸이 보여주는 자기 긍정의 드라마가 펼

쳐진다.

그것은 또한 철없고 책임감 없는 아버지에 대한 용서의 드라마이기도 하다. “사포처럼 반짝이는 햇빛이 팻팻하게 들어오고 있었다”라든지, “햇빛은 헤어진 애인이 보내온 예의바른 편지처럼 여전히 저쪽 방바닥 위에 놓여 있었다” 같이 비유가 상큼한 표현들, 그리고 “만일 어머니가 아버지를 오늘까지만 기다리겠다고 마음 먹었다면, 아버지는 항상 그 다음날 오는 사람이었다”와 같이 재치 있는 문장들이 군데군데 배치되어 있어 읽는 맛을 살려준다. 상상 속의 아버지에게 분홍색 야광 반바지를 입히고, 또 아버지로 하여금 우스꽝스러운 죽음을 맞게 하면서도 결코 주인공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마음 밖으로 내치게 만들지는 않는 김애란. 어머니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숨어 있던 슬픔과 회한의 한 자락을 슬쩍 내보여주게 하는 작가의 시선과 솜씨도 예사롭지 않다. 소설의 끝에는 삶을 바라보는 성숙한 시선의 소유자만이 간취해낼 수 있는 페이스까지 장착되어 있다. 다소간의 편차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편의 책을 이만큼 맛있는 문장과 깔끔한 서사로 채울 수 있다는 것은 25세의 젊은 작가로서는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중적인 취향과 감각에 호락호락 자신을 맡기지 않으면서도, 또한 동시에 독자들의 반응을 예민하게 포착해낼 수 있는 균형 잡힌 감각의 소유자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애란의 책에서 한국문학의 긍정적 미래를 발견한다면 좀 지나친 말일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우리는, 2000년대에 들어 새롭게 등장한 무서운 신예들, 박민규, 정이현, 이기호, 천명관 등에 이어 김애란이라는 또 한 명의 유력한 가능성을 만나게 되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기탄없이 기뻐해도 좋을 것 같다. 🍀